

16/10/30(주) 주일예배 / 제목 : 낙심하지마세요(갈 6:7~10) p. 309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 54세에 IMF를 맞아 해고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 잘 됐다.”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의 54회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날 네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에는 그 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곧 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말을 들은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도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예요.” 결국 아빠는 아내와 자녀들의 글을 듣고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며 다 무너졌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좌절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사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한만큼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는 (落心) 떨어질 낙, 마음심, 곧,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은 ‘쇄하흐’인데, 이 말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뜻입니다.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마음은 풀이 죽고, 누워서 꿈쩍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에 마음이 감염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낙심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낙심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치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결과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업적을 낳았는가? 이것이 경쟁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을 좋은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고 맙니다. 땀은 흘렸지만,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노력했지만, 애써서 시작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우리는 깊은 낙심의 늪 속에 빠져 들어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은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왜 육신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육신적인 잘못된 동기로,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강조점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선한 동기로 시작해도, 영적인 동기로 시작해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다 심각한 의미에서의 낙심이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실컷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라고 후회를 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기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추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순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벌써 우리의 동기에 대해 점수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의 이자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노력해서 또한 두 달란트의 이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린 상급은 똑 같았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 다. 왜 그럴습니까? 이 두 사람의 동기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동기가 선하고 순결하다면 그 일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 수확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낙심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국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간혹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춰지는 미국인들의 길게 늘어진 줄의 행렬을 보십시오. 저들은 거기에서 줄을 서서 농담을 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농담할 줄도 모르고,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활 습성 속에는 시대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는 라면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끓여 먹어야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하는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혹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 커다란 낙심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에게 아무래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비극과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당장에 해치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확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어떤 것은 기다려야만 탐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인격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보십시오. 그러나 열 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이를 “여덟 달 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여덟 달 반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여덟 달 반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여덟 달 반의 인격을 추구하고, 여덟 달 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국화도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당장에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긴 인내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기 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 수확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3. 선한 일에 대한 보람과 금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금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동기로 일을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목표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도 선한 일이라는 금지를 가지십시오. 아니,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그 일에 보람과 금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낙심은 왜 옵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금지를 갖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 볼일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직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자존심이나 금지나 보람이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쉽게 피곤해 합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지쳐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여기에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몇 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경에 보면, 어떤 굉장한 일을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 물론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세기의 종교적인 암흑시대 때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직'이라는 직함입니다. 로마 교황과 사제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직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성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목회만 성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입니다.

이 관념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위대한 현대사상을 낳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이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탁소를 운영할 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성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솔뚜껑을 운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이 짓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분과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주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부인의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금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낙심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낙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시편 기자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때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듯이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겠지만 결코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자기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반응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긍지를 심어 주시는 그 순간, 내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자신의 삶을 능력있는 삶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 보았듯이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하고, 둘째는 수확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하며, 셋째는 선한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핵심 :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요약정리 /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 수확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3. 선한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